

**[9월 첫째주 가정예배]**

**두려움 없는 삶**

**[찬송] 444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시편 91 편 1 절**

**[말씀]**

인생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것 중 하나가 소속감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인가, 이를테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단체 등에 분명히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이 땅에서는 주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소외를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인간은 먼저 자신의 영혼이 거처할 지리인 육체를 질병이나 사고, 그 밖에 다른 일들로 인해 상실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자리잡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자리가 약하면 누구든지 불안을 느낍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인 자리를 잃어버릴까 싶어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갖고 고민합니까?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자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갖고 있지 못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직장의 자리를 얻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의 자리를 얻어도 또 문제입니다. 이번엔 자리를 타인에게 빼앗길까 싶어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간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의 자리를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사회적인 자리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육체의 자리, 사회적인 위치의 자리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혀 주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자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설교자]**

저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소외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녀이름)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자녀이름)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9월 둘째주 가정예배]

**은혜의 삶**

[찬송] 458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고린도전서 2 장 9 절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든 인생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낱알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당신의 뜻대로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도, 각 개인의 삶의 방향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그 권한을 갖고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은혜의 생활을 합니다. 시편 139 편 16 절에서 18 절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일을 알기 위해서 점괘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환하게 알고 계시고 성도를 위해 진선미의 인생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 향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히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동분서주하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려 애쓰는 것은 모두 헛된 행위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설교자]

저희의 모든 것을 예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녀이름)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자녀이름)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9 월 셋째주 가정예배]

**바르고 성실한 믿음**

[찬송] 336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요한일서 3 장 17 절

[말씀]

우리 가족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믿음의 토대도 없이 마냥 팔짱을 끼고 앉아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하고 기다린다면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토대를 마련키 위하여 우리가 인격 속에 준 비해야 할 몇가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거짓을 만들어 낼 수는 있어도 그 거짓이 오랫동안 유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거짓이 통하고 흥왕하는 것같이 보일지 몰라도 곧장 그 근본이 드러나고 그 위에 지은 인간의 모든 창조가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렇므로 우리 가족은 정직을 생활 신조로 삼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맡은 일의 크고 작음을 따져 큰 일이라면 좋아하고 작은 일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성실하는지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5 장 41 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무를 초월한 성실성이 있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을 다하면 그것이 곧바로 성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임무만을 이행하는 것이 참성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 어떤 일을 맡았든지간에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은 먹을 것을 찾아 부지런히 여기 저기 날아다니는 새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므로 사람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삶의 밝은 면을 강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어도 역시 처마 밑은 그늘이 지고 나무 밑이나 다리 밑은 그늘이 집니다. 찬란한 태양을 외면하고 그늘만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늘을 외면하고 태양을 찾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태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어두운 면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슬픔과 고통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밝은 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 가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웃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녀이름)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자녀이름)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9 월 넷째주 가정예배]

**자아를 발견하는 기쁨**

[찬송] 473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빌립보서 4 장 4 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도 기뻐합니다. 그 역경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폐쇄된 공간에서 바울은 진리를 통해 자유함의 기쁨을 얻고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기쁨을 잃는다면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항상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쪼들여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 장 17 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다. 사람이 억압되었다가 해방되면 큰 기쁨을 갖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얻고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기뻐했던 그 감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장애의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자아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디에서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아를 잃어 버린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과자를 손에 들고 고급 옷을 걸쳤으나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우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종국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눈물과 근심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우리의 신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현재 그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기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 설교자]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믿음을 더욱 강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녀이름)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자녀이름)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